

빠르게 변화하는 축산업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는 지금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 등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연일 매스컴들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법정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쪽에 기아(KIA) 문제가 있다면, 한반도 북쪽에도 기아(饑餓) 문제로 죄없는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 모두 기아(起亞)와 기아(饑餓)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아(KIA)가 부도에 직면한 원인으로 지나친 부채를 첫 손으로 꼽았다. 그 후 진로, 해태, 대농 등 기업들이 하나같이 은행 빚으로 무리한 시설 확장을 한 것이 부도에 직면하게 된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농가 부채가 2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부도나지 않나 걱정된다. 양돈분야도 지난 4년간 약 1조6천3백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대부분 융자가 많기 때문에 빚으로 시설투자를 하여 왔고, 규모 확장을 하였다. 양돈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부도유예 협약이나 화의신청 등 최근 대기업들에서 적용되는 제도들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법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축산업 전체가 부도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융자금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버티면 기아 사태처럼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돈가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0-157:H7, 0-26, 리스테리아균, 캄피로박타 등 매스컴의 계속되는 보도로 축산물은 안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불안, 경기침체 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0-157균이 발견된 후 미국의 육류업계에서는 쇠고기, 양고기 등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돼지고기에서 기생충 문제 등으로 감마선 조사가 허용되었으나 미국 소비자들의 기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방사선 조사는 포장지에 방사선 조사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고기를 육안으로 보고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큰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감자, 마늘 등 극히 일부 농산물에 허가되었으나 장기 보관에 따른 경제성 등으로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방사선 조사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당분간은 국내법에 의해서 수입금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육류 수급상 또는 무역 압력에 의해서 개방될 경우 대중음식점 등에서 방사선이 조사된 고기가 판매되면 소비자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방사선 조사가 그간 실험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몇 십 년 후 또는 다음 대에 기형아 출산 우려 등 아직은 소비자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여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방사선 조사로 냉장육이 신선한 상태로,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저장·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사선 조사는 미국 국내 유통보다는 수출용 축산물에는 경제성도 있어 수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매력을 미국 육류 취급업자는 뿌리치지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엘리뇨 현상에 따른 곡물 생산 감소와 환율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식량 자급률이 25%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로서는 환율 상승과 함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부에서 해결되었지만 수입이 개방된 지금은 그 영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97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변화에 우리 양돈업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온 국민이 월드컵 축구 예선에 열광하고 있는데, 차범근 감독은 상대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우리 팀의 실력도 모두 입력하여 작전을 수립하고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일치단결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회는 '95년 겨우 미국, 일본, 대만, 덴마크의 양돈 현황을 우선 개괄적으로 연구·조사한 바 있으나,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야 예상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은 이런데 필요한 자금을 자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우리도 자조금제도를 확립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養豚**